

쓰기 '과정'의 초점화를 통한 쓰기 지도 방안

- 수정하기와 출판하기 과정을 중심으로 -

김정자*

〈차 례〉

- I. 과정 중심 쓰기 지도의 대두
- II. 과정 중심 쓰기 지도에서 쓰기 과정의 구분
 - 1. 선조적 과정과 회귀적 과정
 - 2. 쓰기 과정 구분에 대한 기존 논의
- III. '과정'의 초점화를 통한 쓰기 과정 구분의 두 방식
 - 1. 쓰기 전의 인지적 사고 과정 강조
 - 2. 쓰기 후의 사회·문화적 과정 강조
- IV.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쓰기 과정 구분 방식
- V. 작문의 맥락에 따른 쓰기 과정의 지도
 - 1. 작문 환경과 수정하기 과정의 강조
 - 2. 담화공동체와 출판하기 과정의 강조
- VI. 결론

I. 과정 중심 쓰기 지도의 대두

작문 이론가들은 작문 교육의 새로운 경향을 쓰기 과정에 대한 강조, 학습에 대한 강조, 읽기에 대한 강조, 전자 작문에 대한 강조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Robinson et al. (eds), 2000). 작문 교육은 숙련된 필자의

*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글쓰기에 대한 통찰을 통하여 결과에서 과정으로 교육의 강조점을 옮기게 되었으며, 이제 과정 중심 작문 지도는 교실에서 일상적인 활동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수단으로서 작문의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것은 범교과적 쓰기의 확산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읽기와 쓰기는 상반된 과정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활동으로 보아야 하며, 읽기 지도에서 쓰기는 중요한 한 요소이며, 읽기와 쓰기의 관련성을 인식하는 것은 작문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작문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여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한 작문 즉 전자 작문이 직장과 교실에서 일반화되었고, 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 중에서 작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들라고 하면 작문 과정을 중심으로 글쓰기 지도를 하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과정 중심 쓰기(Process writing) 이론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의 여러 학자들의 쓰기 과정 연구에서 유래되었으며, 쓰기 과정의 이론적 모델을 만든 이들의 대표적 예가 Flower & Hayes(1980a, 1980b)이다.

쓰기 교육에서 과정 중심 접근(process approach)은 계획하기, 초고 쓰기, 수정하기와 같이 필자가 글쓰기에서 사용하는 작문 과정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으로서,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쓰기 과정을 익히게 하여 학생들의 쓰기 기능을 개선하려고 한다. 이것은 여러 종류의 쓰기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을 강조하고, 여러 종류의 모범 단락이나 에세이를 모방하는 것을 강조하는 결과 중심 접근(product approach)이나 산문 모델 접근(prose model approach) 방식과 비교된다(Richards et al., 1992: 290).

과정 중심 쓰기는 쓰기 연구자와 작문 교사에게 일반화된 작문 지도 방법으로서, 80년대 후반 5차 교육과정기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점차 우리 교실에서도 일상적인 작문 지도 활동이 되었다. 5차 교육과정은 언어 사용의 결과(product)보다는 언어 사용의 과정(process)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문교부 고시 제 87-7호(1987. 3. 31)

라. 지도상의 유의점

라) '쓰기' 지도에서는 표현된 결과보다는 그러한 결과를 산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표현할 내용의 선정과 조직, 통일성 있는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글씨 쓰기, 문장 부호, 원고지 사용법 등 비교적 기계적인 요소의 학습은 학생들이 산출한 언어 자료의 적절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편찬 방침(교육부 1993. 8-7)

국어 교과서의 편찬에 있어서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1)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고, 각 영역 내에 소단원을 둔다.
- (2) 언어 사용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교과서로 구성한다.〔중략〕

2. 영역별 단위 구성의 원칙

〈쓰기 영역〉

- (1) 생각이나 느낌을 쉽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 (2) 지식의 전달보다 쓰기의 실제 활동을 중심으로 엮는다.
- (3) 문예창작이 아닌 실용문 쓰기에 중점을 두되, 한 편의 완성된 글보다는 글을 쓰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교육부, 1993, 8-10, 정준섭, 1995에서 재인용:160).

'98년도 초등학교 1종도서 편찬 추진계획

〈별첨 2〉 교과목별 집필상 유의점

국어과

2. 쓰기 교과서의 구성 체제

① 단원의 구성

- 각 단원은 교육과정의 쓰기 영역과 국어 지식 영역 내용을 설정의 의도에 적합한 교수·학습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세화하여 목표 중심,

과정 중심, 활동 중심으로 구성한다.

교육과정과 교재 편찬의 지침 등에서 알 수 있듯이 5차 교육과정기부터 6차 교육과정을 거쳐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초, 중, 고등학교에서 작문 교육의 중심적 방법이자 내용으로서 과정중심 쓰기가 강조되어 왔다. 실제로 5차뿐만 아니라 지금의 7차 초·중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쓰기 단원을 분석해 보면, 작문 과정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글을 쓰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글을 쓰기 위해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과정을 통하여 글을 완성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작문 이론에서 과정 모델은 글이 몇 가지 단계의 여러 가지 활동들 즉 미리쓰기(rewriting), 계획하기(planning), 초고쓰기(drafting), 멈추기(pausing), 읽기(reading), 수정하기(revising), 편집하기(editing), 출판하기(publishing) 활동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한 결과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쓰기 과업이 이러한 단계를 모두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필자가 계획하기를 많이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전문적인 편집자는 편집하기에 집중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계들은 성공적인 쓰기를 발전시킬 일반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Williams, 1998: 54).

그러나 작문 교육에서 과정 중심 쓰기 지도에 대한 한계 지적과 비판도 만만치 않다. 과정 중심 접근이 본질적으로나 또는 실천되는 과정에서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을 지적하거나(이재승, 2002), 교과서 분석이나 실제적 지도 경험을 통한 비판을 제기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들 비판의 핵심은, 쓰기 교육에서 학생들의 활동만 있고 실제적인 교육 내용은 없다는 데 있다. 글을 쓰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생성, 선정하고 조직하여 텍스트를 생산하고 초고를 고쳐쓰는 등의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은 쓰기 교육을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은 있으나 어떠한 텍스트를 생산해 내야 할지에 대한 교육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중심 쓰기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사회구성주의 작문, 대

화주의 작문이론, 장르 중심 작문 이론 등이 등장했으나, 과정 중심 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쓰기 교육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더구나 작문의 사회이론 모델을 과정 모델의 반동이 아니라 연장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사회 이론 모델은 과정 중심 쓰기에 근거하되, 필자 개인의 심리를 강조하는 과정 모델에 수정을 가하여 협의의 개념과 소집단에서 사회에 이르는 독자의 개념을 확대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Williams, 1998: 67-68). 또한 1960년대 후반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쓰기에서 과정중심 접근을 표현적 단계, 인지적 단계, 사회적 단계, 담화 구성체 단계의 네 단계로 나누기도 한다(Grabe & Kaplan, 1996).

따라서 본고에서는 쓰기 과정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나서 작문 교육에서 쓰기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쓰기 과정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나서 쓰기 과정에 대한 구분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것이 작문 지도에서 지니는 의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작문 지도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수정하기와 출판하기 단계의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II. 과정 중심 쓰기 지도에서 쓰기 과정의 구분

1. 선조적 과정과 회귀적 과정

쓰기가 “쓰기 전(rewriting)-쓰기(writing)-쓰기 후(postwriting)”의 엄격한 단계로 구분되는 선조적 과정이 아니라 회귀적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쓰기 과정에 대한 정설이 되었다. Flower & Hayes(1980a)의 “쓰기 모형(Writing model)”은 쓰기 과정이 여러 개의 하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질적으로 회귀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쓰기 과정은 계획하기, 작성하기, 재고하기의 주요한 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정하기를 통하여 회귀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필자는 글을 쓸 때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계속적으로 조정하고, 이러한 조정을 통하여 필자는 한 과정에서 다른 과정으로 앞뒤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쓰기 교육과정에서 쓰기 내용을 설정하거나 쓰기 교과서에서는 교수-학습 활동을 구안할 때는 지도에서는 쓰기 과정을 여러 개의 하위 단계로 분절하여 선조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박영민(2001)은 회귀적 과정의 작문 이론은 본질적으로 작문 교육과 합치될 수 없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작문 교육은 단위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절차'가 있고 학생 필자의 작문 능력을 신장시켜야 하는 목표를 의식하고 있는 '교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작문 이론과 작문 교육이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단위 시간 속에서 일정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작문 교육 상황은 '회귀적 작문 과정'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게 하는 요인이 된다. 회귀적 작문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구애되지 않고 '조정하기'에 따라 작문의 심리적 단계를 넘나든다는 관점인데, 작문 교육의 상황은 본질적으로 이 과정을 따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쓰기 과정은 본질적으로 회귀적 특성을 지니므로 어디까지 계획하기 단계이고 어디까지 작성하기 단계인지 분절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필자들의 쓰기 과정 속에서, 즉 한편의 글을 쓰는 동안 필자들이 어떠한 활동을 주로 하는 지 쓰기 과정이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는지는 알 수가 있으며, 전체적인 작문의 과정에서 처음에는 어떤 활동이 주로 일어나는지 마지막에는 어떠한 활동이 주로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있다. 작문 교육에서 과정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수업을 회귀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필자들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 두드러진 활동을 작문의 단계로 설정하여 가르칠 수가 있다.

그런데 쓰기의 과정이 그렇게 단계화가 가능하도록 본질적으로 분명히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쓰기 과정을 예비쓰기, 초고쓰기, 수정하기 등의 주요한 단계로 나뉘어 지도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단계는 항상 회귀적 흐름의 상태에 있다. 예를 들면 초고를 쓰면서도 편집하기를 할 수 있고, 편집을 하면서 예비쓰기 활동을 할 수도 있다(Williams, 1998: 66-67). 그러나 분명히 초고쓰기 단계가 예비쓰기 단계를 선행할 수는 없으며, 수정하기 단계 또한 초고쓰기 단계를 선행할 수 없다.

Murray(1980: 7-20)는 예행연습하기(rehearsing), 초고쓰기(drafting), 수정하기(revising)의 쓰기 과정 중 정보수집하기(collecting), 관련짓기(connecting), 쓰기(writing), 읽기(reading)의 네 가지 힘이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중 예행연습하기(rehearsing) 단계에서는 쓰기와 정보수집하기가 우세하며, 수정하기(revising) 활동은 반대로 관련짓기와 읽기가 우세하다고 보았다. 즉 쓰기 과정이 분절적으로 단계가 나누어지지 않는지만, 특정 활동이 주로 일어나는 단계를 설정할 수 가있다.

따라서 쓰기의 과정을 두드러진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설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쓰기의 과정을 쓰기 전, 초고쓰기, 수정하기, 편집하기, 출판하기 단계로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화가 쓰기의 과정이 선조적인 과정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쓰기 과정의 단계를 나누는 것은 교수·학습의 편의를 위해서 즉 학생들에게 쓰기 활동을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2. 쓰기 과정 구분에 대한 기존 논의¹⁾

쓰기 지도를 위하여 과정을 구분할 때에는 필자들이 글을 쓰는 동안 수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분석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쓰기의 과정을 구분하는 것이 필자들이 글쓰기를 배울 때 좀더 쉽게 글쓰기를 운용할

1) 쓰기 과정 구분 논의에서 여러 연구자들의 쓰기 과정 구분은 많은 부분 이재승(2002: 260-262)에서 재인용한 것이라 따로 서지사항을 따로 밝히지 않았으며, 서지사항을 제시한 것은 필자가 직접 인용한 것이다.

수 있고 글쓰기를 좀더 잘 할 수 있게 되겠는가의 관점에서 글쓰기의 과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작문 이론가와 교육자들이 쓰기의 과정을 어떻게 나누어 설명하는지 살펴보자.

1) 두 과정으로 나누는 경우

- 구성(composing), 전사(transcribing) : Smith

이재승(2002)은 두 과정으로 쓰기의 과정을 구분하는 방식은 쓰기의 과정을 간명하게 제시했다는 점과 쓰기의 중요한 두 특성을 명시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쓰기의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으며, 전사 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사는 계획하고 조직한 것을 문자로 옮기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고 실제로 머릿속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는 구성의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구성이라는 용어만으로는 쓰기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여야 하는지 아무런 지시도 주지 못한다. 교육을 위해서는 쓰기의 과정을 좀더 자세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2) 세 과정으로 나누는 경우

- 쓰기 전(prewriting), 구성(composing), 쓰기 후(postwriting)
: Graves
- 쓰기 전(prewriting), 쓰기(writing), 교정(revision)
: Cooper & Odell
- 계획하기(planning), 초고쓰기(drafting), 수정하기(revising)
: Glatthorn
- 계획하기(planning), 작성하기(transcribing), 검토하기(reviewing)
- 쓰기 전(prewriting), 쓰기(writing), 다시쓰기(rewriting)
- 초고쓰기 전(predrafting), 초고쓰기(drafting), 초고쓰기 후(post-drafting)

- 예행연습하기(rehearsing), 초고쓰기(drafting), 수정하기(revising)
: Murray(1980)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면, 작문의 과정은 아이디어의 생산 과정, 텍스트의 생산 과정, 그리고 고쳐쓰기 과정의 세 가지 특징적인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영목 외, 2003: 189). 용어는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쓰기의 과정을 세 과정으로 구분하는 유형들은 공통적으로 작문을 하기 위한 내용 창안 과정과 머릿속에서 창안한 내용을 문자로 전환하는 과정, 내용의 수정 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쓰기의 과정을 나누고 있다.

3) 네 과정 이상으로 나누는 경우

- 아이디어 생성하기, 아이디어 조직하기, 텍스트 생산하기, 고쳐쓰기
: 최현섭 외(2002)
- 아이디어 생성하기, 아이디어 선정하기, 아이디어 조직하기, 텍스트 생산하기, 교정하기
-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 박영목 외(2003)
- 쓰기 전(rewriting), 초고쓰기(drafting), 수정하기(revising), 편집하기(editing), 출판하기(publishing) : Tompkins(2000)
- 쓰기 전(rewriting), 구성하기(composing), 수정하기(revising), 편집하기(editing), 출판하기(publishing)
- 초고쓰기(drafting) 수정하기(revising) 편집하기(editing) 최종 교정하기(proofing) 출판하기(publishing) : Hoffman(2000)
- 생각꺼내기, 생각묶기, 초고쓰기, 다듬기, 평가하기, 작품화하기
: 경인초등국어교육학회(1995)

쓰기 과정을 세 과정으로 나누거나 네 과정 또는 다섯 가지 이상으로 나누거나 하는 것은 쓰기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즉, 쓰기를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조직하고 그것을 문자로 실체화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에

는 다른 점이 별로 없다. 그러나 쓰기 교육의 관점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필자들이 글을 쓸 때 어떠한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놓고 보았을 때는 그 의미가 다르다. 예를 들면,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과 단순한 일기를 쓰는 과정은 같지 않을 것이다. 둘 다 계획하기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계획하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내용 구상 방법은 다를 것이다. 즉 필자의 글쓰기 능력 숙달 정도에 따라, 필자의 인지적 수준에 따라, 필자가 해결해야 할 쓰기 과제의 성격 등에 따라서 쓰기 과정은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쓰기 과정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지 논의해 보아야 한다.

Ⅲ. ‘과정’의 초점화를 통한 쓰기 과정 구분의 두 방식

이재승(1998)은 일련의 쓰기 과정을 나누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하나는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기능(function)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앞의 방식에는 쓰기 전, 쓰기, 쓰기 후로 나누는 것이 대표적이고, 뒤의 방식에는 아이디어 생산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교정하기로 나누는 것이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두 방식 중에서 후자의 방식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련의 쓰기 과정에서 해야 할 활동을 중심으로 나눔으로써 구체적으로 글쓰기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쓰기 과정에 대한 이러한 구분 방식 외에 또 다른 관점에서 쓰기 과정을 나누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네 단계 이상으로 쓰기 과정을 자세히 나누는 방식들을 살펴보면, 쓰기 전 즉 초고를 쓰기 전의 과정을 자세히 구분하는 유형과 초고를 쓰고 난 이후의 과정을 자세히 구분하는 유형으로 분류할 있다.

■ 쓰기 과정 구분의 두 유형

과정 구분	쓰기 전	쓰기	쓰기 후
쓰기 전의 작문 활동을 강조하는 구분 유형	아이디어 생성하기	텍스트 생산하기	고쳐쓰기
	아이디어 조직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텍스트 생산하기	교정하기
	아이디어 선정하기		
	아이디어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쓰기 후의 작문 활동을 강조하는 유형	쓰기 전	초고쓰기(구성하기)	수정하기
			편집하기
	초고쓰기		출판하기
			수정하기
			편집하기
			최종 교정하기
			출판하기
쓰기 전/후의 활동을 자세히 나누는 유형	생각 꺼내기 생각 묶기	초고쓰기	다듬기
			평가하기
			작품화하기

1. 쓰기 전의 인지적 사고 과정 강조

쓰기 전 즉 초고를 작성하기 전의 활동을 자세히 구분하는 유형으로 대표적인 쓰기 과정 구분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아이디어 생성하기, 아이디어 조직하기, 텍스트 생산하기, 고쳐쓰기
: 최현섭 외(2002)
-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 박영목 외(2003)

이러한 방식은 쓰기 전의 인지적 사고 과정을 강조하는 관점에 속한

다.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작문의 상황을 구성하는 수사론적 문제를 탐색하는 활동을 한다. 수사론적 문제는 필자, 예상 독자, 글의 주제, 글의 목적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필자는 글을 쓰기 전에 이 문제를 탐색함으로써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의 성격을 규정짓게 된다. 또한 구체적인 하위 목적을 설정하고 글 전체의 개략적인 구도를 작성해야 한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는 창의적이고 체계적 사고 활동을 통하여 계획하기 단계에서 서정한 여러 가지 주요 문제 또는 중심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이다. 내용 조직하기 과정은 내용 생성하기 과정에서 만들어진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글의 조직 원리에 맞추어 배열하는 과정이다(박영복, 2003: 257-260).

쓰기 후의 활동을 자세히 구분하는 한 방식은 “초고쓰기”라는 용어로 이 세 과정을 모두 포괄하여 제시하고 있다. 물론 “초고쓰기”라는 단계에서 표현을 하기 전에 내용을 계획하고, 생성하고 조직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작문을 지도할 때 이러한 내용을 통째로 지도하는 것과 하위 기능으로 나누어 여러 단계의 과정으로 제시하여 교육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방식의 쓰기 과정 구분에서는 글을 쓰기 전에 글을 쓰기 위한 준비를 치밀히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쓰기를 지도할 때에도 독자를 예상하고, 글쓰기 목적을 상기하여, 글의 내용을 계획하고 내용을 생성, 선정, 조직하는 일련의 활동에 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현재 우리의 쓰기 교육과정과 쓰기 교과서는 이러한 구분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쓰기 후의 사회·문화적 과정 강조

쓰기(writing, drafting) 이후의 활동을 강조하는 유형의 쓰기 과정 구분 방식으로 대표적인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쓰기 전(prewriting), 초고쓰기(drafting), 수정하기(revising), 편집하기(editing), 출판하기(publishing) : Tompkins(2000)
- 초고쓰기(drafting) 수정하기(revising) 편집하기(editing) 최종 교정하기(proofing) 출판하기(publishing) : Hoffman(2000)

이러한 구분 방식은 최근의 작문 교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으로서 초고를 쓴 이후의 수정하기를 자세히 구분하고 최종 단계로서 출판하기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쓰기 이후의 사회·문화적 과정을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쓰기 전의 인지적 사고 과정을 강조하는 구분 방식에서 “고쳐쓰기”라고 제시한 것을 ‘수정하기, 편집하기’나 ‘수정하기, 편집하기, 최종 교정하기’로 자세히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때 수정하기는 아이디어, 단어의 선택 등 주로 내용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편집하기와 최종 교정하기는 학생들이 필요한 내용 수정을 한 후에 하는 것으로서, 최종 교정하기를 통하여 학생은 마지막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 맞춤법, 띄어쓰기 같은 기계적인 실수와 문장 구조를 검사하는 것이다.

이 때 수정하기는 필자가 개인적, 독자적으로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동료 집단이나 교사와 협의를 통하여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출판하기는 결국 독자인 동료 집단에게 자신이 쓴 글을 공표하고 공유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이 과정들은 사회·문화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Tompkins(2000)는 수정하기, 편집하기, 출판하기 단계에서 다음의 활동들을 하는 것으로 제시했는데, 쓰기를 공유하는 것은 사회적 활동이며, 그러한 공유를 통해 학생들은 독자에 대한 감수성과 필자로서의 자신감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수정하기(revising) 단계의 활동

- 초고 다시 읽기
- 쓰기 집단에서 쓰기 공유하기
- 동료 학생의 쓰기에 대한 논의하기

- 교사와 동료 학생에게 받은 피드백에 따라 수정하기
- 초고와 마지막 원고 사이에 의미 있는 변화 만들기

편집하기(editing) 단계의 활동

- 교정하기
- 동료 학생의 작문 교정하기
- 맞춤법 같은 기계적인 실수 바로잡기
- 최종 편집을 위해 교사와 논의하기

출판하기(publishing) 단계의 활동

- 적절한 형식으로 자신의 작문을 출판하기
- 독자들과 완성한 작품 나누기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필자는 쓰기가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워크숍, 협력하기(collaboration), 교사-학생 협의(teacher-student conference), 동료 비평, 복수 원고 작성(multiple drafts)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실에서 실행된다.

IV.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쓰기 과정 구분 방식

과정 중심 접근을 취하기 시작한 5차 교육과정부터 현 7차 교육과정에서 쓰기 영역의 교육과정과 작문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쓰기 전의 인지적 사고 과정을 중심으로 쓰기 과정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차 작문 교육과정 해설]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쓰기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① 계획하기 단계 : 수시문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단계와 전반적인 계획을 하는 단계
- ② 아이디어 생성하기 단계 :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필자 자신의 기존 지식

을 활용한 창조적 사고를 하는 단계, 즉 필자가 자신의 기억 속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기존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해 내는 단계

③ 아이디어 조직하기 단계 : 필자 자신이 만들어 낸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키고 주어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하는 단계

④ 대상독자를 고려하면서 표현하기 단계

⑤ 목적과 문체와 조직에 유의하면서 고쳐쓰기 단계

[6차 작문 교육과정 해설]에서도 쓰기의 과정을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로 구분하고 있다.

6차 국어 교육과정의 쓰기 영역의 교육 내용에서도 쓰기의 과정에 따라 교육 내용 체계를 구성해 놓았다.

■ 6차 국어 교육과정 쓰기 영역의 내용 체계

	1. 쓰기의 본질	2. 쓰기의 원리	3. 쓰기의 실제
쓰기	1) 쓰기의 특성 2) 쓰기의 과정과 절차 3) 쓰기의 여러가지 상황	1) <u>내용선택</u> 의 여러 가지 원리 2) <u>내용조직</u> 의 여러 가지 원리 3) <u>표현 및 전달</u> 의 여러 가지 원리	1) 정보전달을 위한 글쓰기 2) 설득을 위한 글 쓰기 3) 친교 및 정서표현을 위한 글쓰기 4) 효과적인 글쓰기의 태도 및 습관

7차 국어 교육과정의 쓰기 영역의 내용 체계와 7차 작문 교육과정도 쓰기의 과정에 따라 내용 체계를 구성해 놓았다.

■ 7차 교육과정의 쓰기 영역의 내용 체계

	• 쓰기의 본질	• 쓰기의 원리	• 쓰기의 태도
쓰기	-필요성 -목 적 -개 념 -방 법	-글씨 쓰기 - <u>내용 생성</u> - <u>내용 조직</u> - <u>표 현</u>	-동기 -흥미 -습관 -가치

	-상 황 -특 성	- <u>고쳐쓰기</u> -컴퓨터로 글 쓰기	
	•쓰기의 실제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설득하는 글 쓰기 -정서 표현의 글 쓰기 -친교의 글 쓰기		

■ 7차 작문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체계

작문의 이론		작문의 실제
(1) 작품의 본질	(가) 작품의 특성 (나) 작품의 상황 (다) 작품의 기능의 특성	(1)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2) 설득을 위한 글 쓰기 (3) 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 (4) 친교를 위한 글 쓰기 (5) 정보화 사회에서의 글쓰기
(2) 작품의 원리	(가) 작문 맥락 파악 (나) <u>작문 과정에 대한 계획</u> (다) <u>작문 내용 생성</u> (라) <u>작문 내용 조직</u> (마) <u>작문 내용 표현</u> (바) <u>작문 과정에 대한 재고 및 조정</u>	
(3) 작품의 태도	(가) 작품의 동기 (나) 작품의 흥미 (다) 작품의 습관 (라) 작품의 가치	

이재승(2002)은 다음과 같이 쓰기의 과정을 계획하기,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수정하기로 나누고, 여기에 이들 과정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활동으로 조정하기의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다.

계획하기	조정하기
(내용)생성하기	
(내용)조직하기	
(내용)표현하기	
수정하기	

글쓰기 과정을 설정할 때, 편집하기와 출판하기가 일련의 글쓰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이들 활동이 글쓰기 활동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글쓰기 과정을 계획하기,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수정하기로 나누고, 이들 과정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활동으로 조정하기의 개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작문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가 이러한 과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 체계의 구성에서만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쓰기 영역에 해당하는 5~10개 정도의 학년별 내용을 분석해 보아도 쓰기 과정에 근거한 교육 내용 즉, 초고 작성을 위한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의 교육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초고 작성 전의 '내용 조직'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차 국어 교육과정의 쓰기 영역의 내용 분석

범주 학년	쓰기							쓰기의 태도
	쓰기의 본질	쓰기의 원리						
		글씨 쓰기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	고쳐 쓰기	컴퓨터 로 글쓰기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6		7	8
4	1		2	3, 4, 5	6	7	8	9
5	1	2	3	4, 5, 6	7	8	9	10
6	1		2	3, 4	5	6		7
7	1		2	3	4	5		6
8	1		2	3	4	5		6
9	1		2	3	4	5		6
10	1		2	3	4	5		6

교과서의 구성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쓰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글쓰기를 위한 학습 활동이 내용 선정과 내용 조직, 표현하기 단계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상)

학습활동 - 함께 하기

대중문화에 지나치게 빠져 있는 청소년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글을 쓰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해 보자.

- (1) 대중 문화에 지나치게 빠져 있는 청소년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그 근거를 조사해 보자.
- (2) 이 같은 주장의 핵심 내용을 항목화하여 분류해 보자.
- (3) 평소의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중심으로 부모님 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자신의 독립 선언서를 써 보자.

7차 중학교 3-2학기 생활국어교과서 “3. 글쓰기의 실제” 단원의 소단원 “(1)글쓰기의 과정”에서는 글쓰기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글을 쓸 때,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 왜 이 글을 쓰는지 생각해 본다(계획). 그리고 나서, 무슨 내용으로 쓸 것인지 고민한다(내용 생성). 쓸 내용을 어느 정도 마련하면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해 본다(내용 조직). 그 다음에는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한다(표현). 마지막에는 자기가 쓴 글을 읽어 보고 고치기도 한다(고쳐쓰기). 이렇게 여러 단계를 밟아야 한 편의 글이 완성된다.

활동1 글을 쓰려면, 먼저 글쓰기의 목적과 독자를 고려하면서 글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글쓰기의 첫 단계인 계획하기 단계를 살펴보자.

활동2 내용 생성하기와 내용 조직하기 단계를 살펴보자.

활동3 표현하기와 고쳐쓰기 단계를 살펴보자.

5차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살펴보면 쓰기 영역은 과정 중심 쓰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쓰기 과정의 구분 방식을 살펴보면 초고 작성 전의 인지적 사고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V. 작문의 맥락에 따른 쓰기 과정의 지도

1. 작문 환경과 수정하기 과정의 강조

컴퓨터나 인터넷 기반의 작문 환경에서는 종이에 펜으로 글을 쓸 때 보다 수정이나 편집이 더 용이하게 되었다.

전자 작문은 작문 교육에서 새로운 경향이자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이다(Robinson et al. (eds.), 2000).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글쓰기의 매체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이전에는 종이에 펜으로 글을 썼으나, 지금은 컴퓨터에서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글쓰기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 되었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글쓰기의 환경은 또 한 번 급격히 변화했다.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신의 블로그를 작성하거나 각종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도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단순히 글쓰기의 매체 환경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글쓰기의 본질과, 과정, 특성까지 변화시켰다.²⁾ 전자 작문은 쓰기 교육의 풍경을 과감히 바꾸어

2) [고등학교 작문 교육 과정 해설]에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글 쓰기'의 도입 배경을 제시하면서 그것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라) 정보화 사회에서 작문은 작문의 상황이나 작문의 수행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작문과는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이용하면 자료에 접근하여 이용하기 쉽다는 점, 채팅과 같이 실시간에 여러 사람이 하나의 화면을 공유하여 협동작문이 쉽다는 점,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기능이 가지고 있는 편집 기능으로 아이디어 생성과 조직에 힘쓰기보다는 글부터 쓰기 시작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 등이 정보화 사회의 작문이 가지는 특성이다.

놓았으며, 변화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새로운 매체인 컴퓨터와 인터넷을 교육 내용으로 수용하였다. 특히 [국어 교육과정] 쓰기 영역에서는 '컴퓨터로 글쓰기'가, [작문 교육과정]에서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글 쓰기'의 전자 작문이 내용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에 도입된 내용들은 단순히 필기 도구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뿐 컴퓨터나 인터넷이 지닌 새로운 소통의 매체로서의 본질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정보의 저장과 처리가 용이함으로 인한 변화, 뛰어난 편집 기능으로 인한 쓰기 과정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김정자, 2003).

강민경(1999)에서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작문 과정을 관찰하여 그러한 변화를 지적했다. 컴퓨터상의 작문에서는 쓰기 전 구상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컴퓨터 작문은 수정 작업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글을 쓰는 과정 중에 내용 수정, 첨가가 자유로웠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수정하기(revise)의 비중이 증가했는데, 컴퓨터 작문에서는 펜 작문과는 달리, 초고를 완성하고 난 후 수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을 작성하고 있는 중에 수시로 수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수정의 질 또한 달랐다. 펜 작문에서는 글 전체 수준에서의 내용 수정이 용이하지 않았으나 컴퓨터 작문에서는 뛰어난 편집 기능으로 수정하기가 용이했으며,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같은 기계적인 실수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의 기능으로 교정이 가능하므로 내용의 수정에 좀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컴퓨터 작문에서 이러한 특성은 강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펜 작문과 달리 쓰기 전의 계획하기 및 내용 생성, 조직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글쓰기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글을 써 나가면서 계속적인 수정을 통하여 글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작문 환경에서는 쓰기의 과정 중에서 수정하기 단계를 더욱 강조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쓰기 이후의 사회·문화적 과정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고쳐쓰기를 자세히 나누어, '수정하기(revising), 편집하기(editing)'나 '수정하기(revising) 편집하기(editing) 최종 교정하기(proofing)'로 구분한다.

작문 과정을 쓰기 전(prewriting), 초고쓰기(drafting), 수정하기(revising), 편집하기(editing), 출판하기(publishing)로 운영하되, 수정하기 단계를 중요시하여 실제 쓰기 활동에서 초교(2st drafting), 재교(3st drafting)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Carney, 2000: 319-325).

교실에서 과정 활동의 운영

1. 쓰기 전(prewriting)
2. 초고(1st drafting) - 필자에 의한 반응
3. 초교(2st drafting) - 쓰기 파트너에 의한 반응
4. 재교(3st drafting) - 교사에 의한 반응
5. 편집(editing drafting) - 교사 혹은 파트너 혹은 둘 다에 의한 반응
6. 최종 원고(final drafting) - 필자에 의한 반응, 교사에 의한 평가

이러한 수정하기 과정 즉 다수의 원고 작성을 통하여 글쓰기는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점차 의미를 명료화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앞에서 교육과정 내용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7차 교육과정에서는 4학년부터 10학년까지 매 학년마다 교육 내용을 하나씩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쓰기 교과서에서 고쳐쓰기의 원리를 배우는 단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쓰기 과제에서 수정하기는 형식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자신이 쓴 글을 동료집단이 교사의 피드백에 따라 고쳐쓰는 활동은 거의 제한되어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쓰기 교과서는 일종의 워크북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초고를 쓰는 공간은 마련되어 있으나 “고쳐 써보자”는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어도 자신이 쓴 글을 고쳐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담화공동체와 출판하기 과정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글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 많은 연구들이 중등학년에 쓰기에 대한 태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학생들을 의미 있는 쓰기 활동에 참여하도록 효과적으로 동기화시킬 수 있는가는 쓰기 교육에서 주요한 논쟁거리이다(Robinson et al. (eds.), 2000).

쓰기 능력은 실제로 글을 쓰는 활동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쓰기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쓰기 교육의 출발점이자 성공적인 쓰기 교육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글쓰기에 흥미와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한 방법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쓴 글을 출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출판하기는 쓰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최종 원고를 작성하는 단계와 의도된 독자와 쓰기를 공유하기 위해 그를 특정한 형식으로 만드는 단계로 구성된다(Cooper, Kiger, & Au, 2003: 344). 즉 출판하기는 자신이 쓴 글을 어떤 형식을 통해 의도된 독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 단계는 글쓰기의 상황맥락을 실제적으로 만들어 준다. 학생들에게 특정 독자를 상징하고 글을 쓰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제로 자신의 글을 읽고 평가할 독자인 교사를 염두에 두고 글을 쓰게 된다. 그러나 출판하기 활동을 통해 학급 동료나 또래 집단, 부모,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실제 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글을 쓸 때 독자를 고려하여 글을 쓰게 된다. 즉, 추상적인 담화 공동체의 개념을 교실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작문 교육의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로 하여금 쓰기가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인 행위이며, 자신들의 글을 읽을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Williams, 1998: 66)이라고 했을 때 출판하기 과정은 작문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쓰기 교육에 대한 여러 문헌에서 출판하기 과정의 지도 효과와 의의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출판하기는 모든 학생들에게 중요하다. 출판하기 국면은 쓰기의 이유를 입증하고, 학생들에게 그들에 작품에서 자부심과 즐거움을 느끼도록 해 준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글을 많이 출판할수록 필자로서의 자신의 감각을 개발하고

쓰기 과정을 성장시키게 된다(Cooper, Kiger, & Au, 2003).

출판의 기회는 모든 단계에서 글쓰기 과정에 대한 학습의 태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계획하기와 수정하기를 하는 동안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은 화제를 주의 깊게 선택했으며, 주의를 끌만한 화제를 선정하려고 노력했다. 글쓰기를 끝난 후에는 동료학생과 교사에게 피드백을 얻었으며, 자신의 글을 수정했다. 독자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 교사진, 관리, 가족, 친구들이라는 것은 더 강한 동기가 된다(Soven, 1999: 51-52).

학생들이 자신들의 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책을 만들거나 묶는 것이다. 여러 학생이 협력하여 책을 만들 수도 있고 학생 개인의 문집을 만들 수도 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간단한 유형의 책을 만들고, 점차 책의 형식을 갖추어 복잡한 유형의 책으로 옮겨 갈 수 있다.

출판하기가 글을 꼭 책이나 잡지로 인쇄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글을 공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것을 읽어서 다른 학생과 공유하거나 게시판이나 학생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다른 장소에 글을 게시하는 활동들도 포함하고 있다(Williams, 1998: 66). 책을 출판하는 대신에 쓰기를 공유하는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다.

- 필자의 의자(글을 반친구들에게 읽어주기)
- 게시판에 게시하기
- 학급신문, 학교 신문 또는 지역사회 신문에 투고하기
- 학생 잡지에 투고하기
- 작문 모임에서 발표하기
- 웹 사이트에 올리기

출판하기 단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모든 학생들에 출판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출판의 기회를 제공하면 학생들에게 글쓰기의 흥미와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없다. 둘째,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비형식적 출판하기와

형식적 출판하기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좋다. 글쓰기를 막 배우기 시작한 학생에게 책의 형식으로 출판을 하게 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는 자신의 글을 읽어 발표하거나 게시하는 등의 비형식적 출판을 우선으로 하고 고학년이나 중등학교 단계로 갈수록 공식적 출판하기로 이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출판하기가 효과적이라고 해서 모든 글쓰기 과제마다 출판하기 과정을 요구하는 무리이다. 출판하기에 적절한 쓰기 과제를 학기 초에 미리 선정해 한 학기나 일 년 동안의 출판 계획을 짜는 것이 좋다. 넷째, 출판하기 활동은 다른 교과와의 수업과 통합될 수 있는데, 이 때 중심 활동은 쓰기 활동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책 만들기 수업 중 정작 학생들은 책에 들어갈 글쓰기의 내용보다는 책 표지라든지 책의 삽화를 구성하는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VI. 결 론

우리의 작문 교실에서 과정 중심 글쓰기는 작문 교육의 주요한 내용이자 지도 방법이다. 현재 쓰기 교육은 과정 중심 쓰기 이론에 따라 쓰기의 과정에서 이용되는 여러 쓰기 전략과 기능을 익히도록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을 실제 글을 쓰는 과정 속에서 배우도록 의도되어 있다. 과정 중심 쓰기 지도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것을 대체할 만한 쓰기 교수의 방법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흔히 과정 중심 쓰기 지도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장르 중심 작문 이론은 “어떻게 쓰나”가 아니라 “무엇을 쓰나”에 집중하는 이론이다.

과정 중심 접근의 쓰기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는 과정 중심 쓰기 이론 자체의 한계도 있겠지만, 그러한 접근법을 제대로 담지 못한 쓰기 교재의 구성과 그 이론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교사도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글쓰기는 여러 개의 하위 과정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지는 다층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관계없이 또는 쓰기 과제의 성격에 관계없이 쓰기 과정을 “아이디어 생성하기, 아이디어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로 나누어 고정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쓰기의 각 과정에서 하는 활동 역시 고정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학습자의 수준이나 특정 장르,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활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 생성하기와 조직하기 단계에서 거의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정 중심 글쓰기 지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쓰기 과정의 구분을 고정적으로 하여 지도할 것이 아니라, 작문의 맥락에 따라 쓰기의 ‘과정’을 초점화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즉 쓰기를 지도할 때 쓰기 과제의 성격에 따라, 쓰기 교수의 목적에 따라, 대상 학생의 쓰기 능력 발달 수준에 따라 쓰기 과정의 구분을 유동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현 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수정하기’와 ‘출판하기’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의 교육적 의의를 논의했다.*

* 본 논문은 2006. 6. 25. 투고되었으며, 2006. 7. 13. 심사가 시작되어 2006. 7. 29.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자료〉

- 문교부(1988),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문교부 고시 제88-7호(1988.3.31).
교육부(1992),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92.10.30).
교육부(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교육부고시 1997-15호.
- 강민경(1999),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작문 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경인초등국어교육학회(1995), 과정중심 글쓰기교육 워크숍, 워크숍 자료집.
- 김정자(2003),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작문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6집, 국어교육학회.
- 박수자(2002), 쓰기 과정에서 내용 생성에 초점을 둔 쓰기 지도, 국어교육 109, 한국어교육학회.
- 박영목(1999), 국어 표현 과정과 표현 전략, 한국독서학회. 305-351.
- 박영목 외(2003), 국어교육학 원론(제2판), 박이정.
- 박영민(2001), 작문 이론과 작문 교육의 대응, 한국어문교육 10,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 박태호(2000), 장르 중심 작문 교수 학습론, 박이정.
- 우리말교육연구소 위음(2003), 외국의 국어 교육과정 1, 나라말.
- 우리말교육연구소 위음(2003), 외국의 국어 교육과정 2, 나라말.
- 이수진(2001), 과정 중심 작문 이론의 한계와 극복 방안 탐구: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중심으로, 청람어문학 23, 청람어문학회.
- 이재승(2002),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교육과학사.
- 이재승(2001), 과정 중심의 작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새국어교육 62, 한국국어교육학회.
- 이재승(1998),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구현 방안, 청람어문학 20, 청람어문학회.
- 원진숙, 황정현 역(1998), 글쓰기의 문제해결전략, 동문선.
- 정준섭(1995),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차호일(2002), 작문이론의 작문교육적 접근, 한국초등국어교육 21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최현섭 외(2002), 국어교육학개론(제2판), 삼지원.
- Carney, B.(2000), Process Writing and the secondary School Reality, In R. D. Robinson et al.(eds.), *Issues and Trends in Literacy Education*(2nd), Allan & Bacon.
- Cooper, J. D., Kiger, N. D. & Au, K. H.(2003), *Literacy : Helping Children*

- Construct Meaning(5th)*, Houghton Mifflin Company.
- Flower, L. and Hayes, J.(1980a), Identifying the Organization of Writing Processes, In L. Gregg and E. Steinberg(eds), *Cognitive Processes in Writing*, Hillsdale, NJ: Erlbaum.
- Flower, L. and Hayes, J.(1980b), The dynamics of composing : Making plans and juggling constraints, In L. Gregg and E. Steinberg(eds), *Cognitive Processes in Writing*, Hillsdale, NJ: Erlbaum.
- Grabe, W. & Kaplan, R. B.(1996), *Theory and Practice of Writing*, London & New York : Longman.
- Hoffman, J. V.(2000), Process Writing and the Writer's Workshop, Robinson, In R. D. Robinson et al.(eds), *Issues and Trends in Literacy Education(2nd)*, Allan & Bacon.
- Murray, D. M.(1980), Writing as Process : how writing finds its own meaning, In T. R. Donovan and W. McClelland(eds), *Eight Approaches to Teaching Composition*, Illinois :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 Richards, J. C. et al.(1992), *Longman Dictionary of Language and Applied Linguistics*, Longman.
- Soven, M. I.(1999), *Teaching Writing in Middle and Secondary schools*, Allyn & Bacon.
- Tompkins, G. E.(2000), *Teaching Writing : Balancing Process and Product(3rd)*, Merrill Prentice Hall.
- Tompkins, G. E.(2003), *Literacy for the 21st Century(third edition)*, NJ: Merrill Prentice Hall.
- Williams, J.D.(1998), *Preparing to Teaching Writing(2n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초록>

쓰기 '과정'의 초점화를 통한 쓰기 지도 방안

- 수정하기와 출판하기를 중심으로 -

김정자

쓰기 교육에서 과정 중심 접근은 계획하기, 초고쓰기, 수정하기와 같이 필자가 글쓰기에서 사용하는 작문 과정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으로서,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쓰기 과정을 익히게 하여 학생들의 쓰기 기능을 개선하려고 한다. 과정중심 쓰기는 5차 교육과정기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점차 우리 교실에서도 일상적인 작문 지도 활동이 되었다. 쓰기의 과정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필자들이 글쓰기를 배울 때 좀더 쉽게 글쓰기를 운용할 수 있고 글쓰기를 좀더 잘 할 수 있게 되겠는가의 관점에서 글쓰기의 과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쓰기 과정의 구분 방식을 초고를 쓰기 전의 활동을 자세히 구분하는 유형과 초고를 쓰고 난 이후의 활동을 자세히 구분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쓰기 전의 인지적 사고 과정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글을 쓰기 전에 글을 쓰기 위한 준비를 치밀히 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우리의 쓰기 교육과정과 쓰기 교과서는 이러한 구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쓰기 이후의 사회·문화적 과정을 강조하는 방식은 최근의 작문 교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으로서 초고를 쓴 이후의 수정하기를 자세히 구분하고 최종 단계로서 출판하기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정하기는 필자가 개인적, 독자적으로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동료 집단이나 교사와 협의를 통하여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출판하기는 결국 독자인 동료 집단에게 자신이 쓴 글을 공표하고 공유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이 과정들은 사회·문화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 작문에서는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정이 일어나고 뛰어난 편집 기능으로 글 전체 수준에서의 내용 수정이 용이하다. 컴퓨터나 인터넷 기반의 작문 환경에서는 쓰기 과정 중에서 수정하기 과정의 지도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출판하기는 자신이 쓴 글을 어떤 형식을 통해 의도된 독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출판하기 활동을 통해 학급 동료나 또래 집단, 부모, 지역사회의 구성원

들이 실제 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글을 쓸 때 독자를 고려하여 글을 쓰게 된다. 작문 교육의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로 하여금 쓰기가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인 행위이며, 자신들의 글을 읽을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출판하기 과정의 지도는 작문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과정 중심 쓰기 지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쓰기 과정을 고정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쓰기 과제의 성격에 따라, 쓰기 교수의 목적에 따라, 대상 학생의 쓰기 능력 발달 수준에 따라 쓰기 과정의 구분을 유동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현 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수정하기와 출판하기 단계를 살펴보고 그것의 교육적 의미를 논의했다.

【핵심어】 과정 중심 쓰기 지도, 쓰기 과정, 인지적 과정, 사회·문화적 과정, 수정하기, 출판하기

<Abstract>

Focallization on Writing 'Process' in Writing Instuction

- Focused on Revising and Publishing -

Kim, Jeong-ja

This paper is intended to discuss how to devide writing into process and to suggest revising and publishing as a way to improve writer's interest and motivation to writing

Process writing instruction is now an everyday activity in many classroom and at virtually every grade level. The writing process is a multi-step process based on how real writers write. This process is foundation for teaching students to write.

The writing process is divided into two way. : One way is dividing prewriting into processes that focused on cognitive process before drafting. The other way is dividing postwriting into processes that focused on sociocultural process after drafting such as revising and publishing. In 7th curriculum and writing textbooks is are based on the dividing way focused cognitive process before drafting as planning, generating ideas, organizing ideas.

During the revising writers clarify and refine ideas in their writing. Revising is an important part of writing but is dealt un importantly and unclearly in 7th curriculum and writing textbooks. Writing in electronic environment makes option available that tend to focus global change and to revise when students begin to write.

Publishing is in the final stage of the writing process. students publish their writing and share it with an appropriate audience such as classmates, other student, teacher, parents, and the community. Sharing writing is a social activity, and through sharing, students develop sensitivity to the audience and confidence in themselves as authors.

In each grade students need to be reminded of general principles

about writing process, which seem to aid just about any kind of writing, and they need to be introduced to modifications of that process suitable for different kinds of writing tasks and situations.

【Key words】 process writing instruction, writing process, cognitive process, sociocultural process, revising and publishing